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새해부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될 예정입니다.

3.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Zo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정이 있어 참석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날 목요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
길 바랍니다.

4. 주일 애찬 교제 모임

주일 애찬 모임을 2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축출산

최빅토리아 권사님 따님이신 에스더 자매님이 지난 목요일 득남했습니다.

지난 주 (1/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률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330.00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장헬렌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1장 37-54절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진리를 여는 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19일	1월 26일
Chris Choi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등불의 빛을 담은 삶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올 때에 만 자신이 어둠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취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신에 사로 잡힌 자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 줄 전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어둠인 인간은 예수를 쫓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를 지르던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과 닳새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둠인 줄 알면서도 등불을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는 건 비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본 사람들도 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숨겨둘 수 없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 빛을 보지 못했거나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속이 빛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가졌다고 해서 내 안의 모든 어둠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장막집이라고 묘사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이 장막집에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도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았고 영원한 집을 보았고, 그것을 믿지만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장막집임을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탄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장막집에 붙들려 살지 않고 내가 어둠이며 그분이 빛이심을 소망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